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色衣奬勵의 弊害
人權蹂躪의 擧는 不可

一

農村振興의 一策으로 各道에서 色衣奬勵를 하는 것은 이미 周知의 일이다。吾人이 本欄에서 이미 工業이 隨伴치 못하는 社會에서 色衣奬勵를 할지라도 結局 經濟上 不利益을 招來하야 도리혀 色衣奬勵의 主旨를 沒却하기 쉽다고 말햇거니와 事實 色衣奬勵의 施行되고 잇는 地方의 實況에 잇서서 吾人의 豫言을 證明하고 잇슴은 섭섭한 일이다。布木商에서 파는 色衣는 大槪 高價의 것이다。廣木 玉洋木 等 歐品의 布木에다 다시 黑色 或은 灰色의 染色을 하야 衣服을 製作하면 染料의 貴한 朝鮮에서는 白衣보다 高價가 걸리고 그러타고 非間에서 해오는 染色法으로 染色할라 할진대 醜하고 陋한 것을 볼 수가 업스리만큼 하다。이 經濟的으로 美觀的으로 不利한 色衣奬勵는 民間의 不平의 的이 되어 잇다

二

그러나 色衣奬勵가 이에 그친다고 하드래도 繼續的으로 奬勵할 必要를 늣기지 안켓거늘 況 奬勵方法에 잇서서 脫線的 行動을 하야 民怨의 的이 되는 것은 더욱 不可 하다。黃海道 松禾郡 當局이 길가는 늙은이나 젊은이를 莫論하고 白衣를 입은 사람에게 色衣奬勵라 새인 黑色박자를 처서 마치 物件가티 取扱하는 例가 잇다 하는 것은 둘재로 하고 一洞民이 他洞民의 옷에 박자를 첫다 하고 그 洞民이 大擧 他洞에 襲擊하야 家家戶戶 衣籠을 열고 白衣에다 黑汁을 全部 뿌리고, 他洞은 다시 他洞에 復讐的으로 他洞 家家戶戶에 가서 衣籠속의 白衣를 끌어내어 黑汁을 부엇다는 것은 人權蹂躪을 지나 可謂 暴動이라고 할 만하다。아무리 色衣奬勵가 人民에게 利益을 끼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人權을 無視하고 自由를 蹂躪하면서까지 强制하는 것이 낫브겟거든 色衣奬勵에는 以上의 缺點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强制함에랴。

三

勿論 當局의 意思는 人權을 蹂躪하면서까지 色衣를 强制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나 下級官廳 其他 實際指導者들이 그 本旨를 모르거나 或은 알고저도 無理히 橫行하는 例가 만흔 듯하니 이 點은 下級官廳及 指導者의 責任도 責任이려니와 監督當局의 責任도 免치 못할 것이다。何故오하면 누구나 地方에 가면 當하고 目睹하는 民怨의 的을 監督當局이 미처 監督치 못햇다는 것은 當局의 監督의 實을 擧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잇슴으로써다。

四

近來 農村振興運動의 科目으로 早婚, 堆肥奬勵, 斷髮實行을 斷行하는 것은 本旨에 잇서서는 反對할 理由를 가지지 안는다。그러나 色衣奬勵의 境遇와 가티 人權을 蹂躪하고 自由를 無視하는 例가 만흐니 假令 제草할 場所가 업슴에 不拘하고 堆肥를 奬勵하는 것은 無理하며, 斷髮을 함에 家宅을 侵入하며, 結縛, 毆打의 暴行을 하는 것 等은 도리혀 反感을 사지 아니할 수 업다。奬勵와 宣傳의 方法은 얼마든지 人權을 尊重하고 自由를 認定하면서 行할 수 잇다。이것을 無視하는 데에 民怨이 생기나니 當局은 監督에 一層 周到한 바 잇서야 할 것이다。

總噸數主義主張을 英國은 反對暗示
맥首相, 싸外相, 몬海相代表로
日英會談 二十三日부터 開會

【電通倫敦十八日發】 海軍豫備會商에서 日本이 提示코저 하는 軍縮案의 骨子인 艦種別制限組織代身에 總噸數에 依한 制限을 하라는 데 關하여는 米代表部는 이를 考慮할 用意가 잇다고 傳하야 자못 注目을 끌고 잇는데 一方 이에 對한 英國側의 態度에 關하야 確實한 側에서 探聞한 바에 依하면 英代表部에서는 總噸數에 依한 制限으로써 艦種別制限組織에 代身하려 하는 데 對한 贊否는 이에 言明할 바이 아니나 華府倫敦兩會議에서 總噸數主義는 다른 障碍를 發生하고 또 그 障害는 回避할 수 업는 結論에 到達한 것을 想起한다고 하야 反對를 暗示하고 잇다 (寫眞은 맥首相)

【電通倫敦十八日發】 山本代表의 倫敦入으로 海軍豫備會商은 再開의 運에 이르러 一段 高調되여 잇는데 半官的으로 發表된 바에 依하면 海軍豫備會商은 來二十三日부터 맥도날드英首相司會下에 日英會談으로 開會될 터인데 英國側에서는 맥도날드首相外 싸이먼外相 몬셀海相이 代表로 出席하기로 되여 잇다

共同廢棄通告를 參加國全部에 勸告
華府條約
各國이 反對할 것은 明白함으로 結局單獨廢棄通告乎

【電通東京電話】 倫敦海軍豫備會商은 來二十三日日英會談으로써 開幕되기로 되엿는데 이 會談에서 日本代表는 日本의 軍縮對策을 宣明하고 現下國際情勢로 보나 比率主義에 依한 華府軍縮條約의 效力이 거이 無價値하게 된 것을 明白히 한 後 儼然 參加國全部는 華府條約의 共同廢棄通告를 行하라는 勸告를 行할 터인데 如斯한 國際會商에서 勸告의 文字를 使用한다는 것으로 日本政府가 如何히 굿든 信念과 決意를 갓고 잇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다 그런데 現在情勢로는 日本의 이 勸告에 對하야 各國이 反對할 것은 明白함으로 萬一日本의 共同廢棄通告에 應하지 안이할 境遇에는 卽時 日本代表는 單獨廢棄通告를 行하기로 決定하엿다는 旨의 意思表示를 行하고 日本政府는 此와 同時에 廢棄通告에 關한 一切의 手續을 完了하야 華盛頓政府에 通告하기로 되엿다

定例閣議

【電通東京電話】 十九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되엿는데 山崎農相은 東北六縣의 凶作地方視察報告를 하야 東北地方의 凶作은 意外로 甚하다 어떤 地方에는 收穫皆無의 慘狀으로 地方民은 政府의 對策을 待望하고 잇다 一方 將來에 對한 更生의 意氣가 顯著히 움지기고 잇슴은 欣喜할 일이다 政府는 救濟키 爲하야 調査機關을 設置할 必要가 잇다고 생각한다 고 意見을 述하고 이에 對하야 町田商相이 贊意를 表하야 商工省의 立場으로도 東北地方의 商工業에 關하야 考慮할 것이 잇다 고 述하고 後藤內相도 同感의 意를 表하야 一般的 施設로서 劃一的으로 考慮하는 同時에 地域으로도 考慮할 必要가 잇다 고 意見을 開陳하고 內田鐵相은 十九日夜出發 東北地方을 視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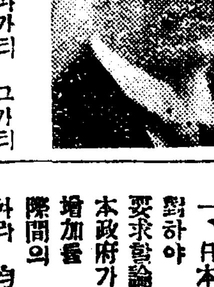
軍縮豫備會商

新聞紙上에 나타난 前哨的聲明書戰
日의 比率廢棄, 米의 擁護主義
【四】 成仁基

前述한 바와 가티 華府, 倫敦兩海軍條約에 依하야 主力艦에 잇서서 英米의 六割 補助艦에 잇서서 約七割의 比率을 保有하여 오든 日本은 滿洲事變으로 因하야 國際聯盟을 脫退하고 極東에 孤立하야 從來의 協調外交를 버리고 自主的 外交政策을 取하게 된 後 所謂 一九三五, 六年의 危機라는 말이 日本國民의 骨髓에까지 박히게 되자 그들은 如何히 하야 이 一九三五, 六年의 危機를 打開하느냐 하는 問題를 考究할 際 맨처음 이 差等的 比率主義를 打破하자는 烽火를 놉피 들게 되엿다 더욱히 이 烽火는 米國이 滿洲事變에 對하야 끗까지 스팀손 政策을 固持하야 不承認主義를 取하고 全米艦隊의 大部分을 太平洋에 集中식히게 되자 一層 熾烈해젓다 이 가티 與論化하야 信念化된 比率主義打破의 主張은 今夏倫敦에서 來一九三五年에 開催될 海軍會議의 豫備會談이 열이게 되자 加一層 沸騰되야 드듸여 日本政府는 지난 九月七日 閣議에서 對軍縮會議根本方針으로 比率主義打破, 一律總噸數主義提唱, 華府條約廢棄等을 決定하게까지 되엿다

×

日本政府가 이 가티 華府條約을 廢棄하려는 理由는 어데 잇슬가? 다만 「華府條約은 距今 十三年前에 締結된 것으로 其後의 國際情勢의 變遷한 變化에 適應치 못함은 自明한 理致이다 一方倫敦條約은 一九三六年까지의 事態를 處理키 爲한 短期條約인 까닭에 萬難을 忍耐하고 受諾한 것이다 따라 右條約에 根本的改正을 加함이 必要하다」는 等 又는 「現存條約의 比率主義는 國民의 國防安全感을 喪失케 한다」는 等의 理由가 列擧되엿슬 뿐으로 具體的으로 表現되지 안엇스나 그 主要한 理由의 하나로는 日本이 極東에 孤立한 後 滿洲國과 防守同盟을 締結한 關係上 直接으로 第一次 五個年計劃을 完成後에 嶄新한 武器로 武裝한 蘇聯邦과 國境을 接하게 되고 또 滿洲及上海事變으로 臥薪嘗膽하는 中國을 엽헤 노앗스며 멀리 太平洋을 隔하야 全米艦隊의 大部分이 太平洋에 集中된 것을 볼 수 잇스리라고 생각한다 勿論 一等國으로서 劣勢한 比率에 滿足할 수 업다는 [illegible] 侮日, 抗日을 하게 한 一原因이 되엿다는 點으로 보아 國家體面上 忍耐할 수 업다는 것도 勿論한 理由일 것이다



×

比率問題에 關하여는 英米는 同率이니만치 그다지 問題가 업스며 日英間에는 差異가 잇서도 日米間과 가티 그 論爭은 적다 日本과 米國은 太平洋의 東西岸에 位置하야 互相嫉視하는 니만큼 또 極東(特히 中國)에 對한 利害가 錯雜하니만큼 如干 比率에 對한 關心이 적은 배 아니다 日本이 比率主義를 打破하고 平等權을 主張하야 華府條約을 廢棄하다는 報道가 傳하자 米國側은 率先하야 英米日間의 現存比率變更 反對를 强硬히 主張하고 잇다 르즈벨트大統領을 爲始하야 스완슨海軍長官及 米下院海軍委員長 빈손 海軍作戰部長 푸랏트 提督等은 異口同聲으로 現存比率主義維持를 主張하고 잇는 터로 그들의 主張을 要約하여 보면

一, 日本政府는 英米兩國에 對하야 現行海軍比率變更을 要求할 論理的 根據가 업다 日本政府가 實質的으로 海軍力增加를 要求함은 決코 國際間의 平和를 促進치 못할 뿐外라 均等權要求及 安全保障原則만으로는 到底히 比率變更의 充分한 論據가 될 수 업다

一, 日本은 地理的으로 英米에서 隔絶되야 他國은 現行比率로써 到底히 日本을 攻擊할 수 업다

一, 日本의 領土及 南洋委任統治領은 第一遼遠한 곳도 本國으로부터 直線코쓰 二千五百哩를 떠러저 잇는 데 不過하다 英米兩國은 戰爭時 防禦할 地域이 훨신 廣大하다

一, 日本은 거이 條約量限度까지의 建艦을 完了한 데 對하야 英米의 建艦은 遲延되엿다 뿐아니라 日本은 現在 事實上 五·五·三 以上의 比率을 保有하고 잇다

一, 一旦 紛爭이 發生되여도 各國은 共同하야 日本을 封鎖할 수 잇는 論理는 업다

一, 比率增大要求는 日本現在의 國庫收入에 徵하야 無理이다

라는 것이다

이런 反對主張에 對한 日本政府의 反駁意向은

一, 日本은 全世界에 亘하야 海洋防備를 할 必要는 업지만 米國이 現在와 가티 全艦隊의 太平洋集中主義를 取하고 잇는 以上 日本은 太平洋方面의 防禦에 充分한 海上兵力을 維持할 것은 日本國民의 國民的 信念이다

一, 滿洲事變의 發生을 轉機로 日本의 極東에 對한 安定力으로서의 使命은 益益加重되엿다

一, 日本의 比率增大要求는 現在의 國庫收入에 鑑하야 無理라고 하나 國防에 遺憾업는 兵力量을 確立코저 함은 國民的 信念인 同時에 萬若來海軍會議結果에 依하야 建艦競爭이 惹起되더라도 日本은 秋毫도 痛痒을 感하지 안는다

一, 對日經濟封鎖는 不可能타 하나 國際聯盟의 四十二對一의 쓰라린 經驗을 追想할 時 日本은 最惡의 事態를 想定하야 萬一에 備함이 當然하다

는 主張을 들어 서로 會議席上에서 直接主張을 披瀝하기 前에 먼저 新聞紙上으로 雜誌上으로 聲明戰을 繼續하고 잇다

(寫眞은 스완슨氏)

議論遂紛糾
急進論과 自重論對立
辭職決行協議中의 巡査大會

【大連十九日發聯合】 巡査大會는 十九日午前九時부터 大連署에서 開催하고 總辭職의 根本에 對하여는 何等異議 업슴으로 直時 辭職決行의 時期 方法等 協議로 들어가 卽時 斷行하라는 急進論과 官吏의 本義에 則하야 繼續 完了를 待하자는 自重論이 對立되여 議論紛糾되여 午前十一時까지에 決定을 보지 못하엿는데 結局急進派에 기우러지리라고 觀測되다 何如튼 巡査層만은 어데까지 [illegible]

結局總辭職決定

【電通大連十九日發】 關東廳巡査大會는 十九日午前十時부터 大連全滿各警察署代表出席下에 硬軟兩派에 分裂되여 激論을 交하고 十時間以上 討議를 行한 結果 總辭職을 決定하는 同時에 左와 如한 意味의 聲明을 發表하고 今後 辭表 聽許까지는 專心 滿洲의 治安維持의 任에 當할 것을 明白히 하얏다

◇……聲明……◇

我等은 事態 茲에 至하야 總辭職을 決行키로 되엿다 그러나 辭表를 聽許하기까지에는 絶對로 現職을 離치 안코 警察官으로서 治安의 維持에 當하고 在留民에 不安의 念을 起하는 과 如한 일은 斷然 업슬 터이다

警部, 警部補는 漸次自重論

【大連十九日發聯合】 全滿警察署長 警部, 警部補 各層은 끗까지 官吏의 本分을 직히여 巡査層의 自重論에 기우러저서 巡査層의 自重을 斡旋키에 努力中이다

西南派要人에게 中央과 合作慫慂
王寵惠氏의 遊說奏效

【香港十九日發聯合】 五全大會開催를 압두고 西南派의 反中央的 策動을 緩和키 爲하야 中央의 委囑을 밧고 南下한 王寵惠氏는 過日來 廣東에서 陳濟棠氏以下 西南派要人과 會見하고 極力 中央과의 合作을 慫慂한 結果 諒解를 어든 模樣이다 王寵惠氏는 十八日夜 廣東으로부터 香港에 歸來하야 再次 西南派文治派 胡漢民氏와 會見하고 最後의 意見交換을 行한 後 諒解를 어든 듯이 보인다 王寵惠氏는 十九日正午 香港出帆의 엠푸레스 오부 카나다號로 北上하엿다

災害復舊土木費 國庫補助額
六千萬圓에 達할 豫想

【電通東京電話】 今回의 風水害로 因한 各府縣市町村 等의 土木事業復舊費는 國庫補助의 請求總額 九千五百萬圓에 達하고 關係地方은 大阪, 京都를 爲始하야 二府二十八縣에 及하고 잇는데 內務省土木局에서는 全國土木出張所 關係技師 技手 事務員 等 百餘名을 動員하고 十五班의 調査班을 組織하야 右三十府縣의 被害個所에 對하야 一齊히 現地調査를 命하고 二十日까지의 豫定으로써 準備査定을 急行하고 잇든바 二十一日朝까지에 調査班 全部가 歸京키로 되엿슴으로 二十一日中에 調査整理를 完了하고 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內務省會議室에서 土木局首腦部及 調査班主任技師의 全體會議를 開하고 調査한 結果에 基하야 最後決定을 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그 結果에 對하야 土木局의 推定에 依하면 請求九千五百萬圓에 對하야 約二千萬圓의 査定을 加하고 總額七千五百萬圓程度가 될 豫想이며 또 國庫補助總額은 六千萬圓에 達할 터이다

二十六日臨議서 召集期日決定

【電通東京電話】 關西地方의 風水害, 九州, 四國의 旱害, 北陸地方의 水害, 東北地方의 冷害凶作에 對한 救濟及復興에 關한 豫算은 關係各省에서 各其 編成을 急하고 잇든바 二十三日頃까지 大藏省에 提出을 見하게 되엿슴으로 政府는 豫定과 如히 臨時議會召集準備를 進捗하야 右召集期日을 來週二十六日定例閣議에서 決定하기로 되엿다

爾後 徒憎者으로도 될 수 잇는 대로 救濟策을 考慮하야 二十三日 定例閣議에 그 具體案을 提出[illegible]하야 在滿機構[illegible]에는 [illegible]지 안코 正午散會하엿다

菱刈長官의 慰撫諭告全文

【電通新京十九日發】 關東廳員辭職騷動에 對하야 菱刈長官의 慰撫諭告全文은 如左하다

曩者在滿行政機構改革案이 決定되자 其間多少變更의 點이 잇다고 하야 爾來諸子는 그 所信을 披瀝하고 도 今番亦是 諸子의 意向을 拓務大臣에 建白하야 그 適當한 處置를 要望하엿다 이로 因하야 政府는 다시 閣議를 開催하고 諸子의 意見을 參酌하야 適當한 協議를 行한 結果 現在 滿洲情勢에 鑑하야 在滿各機構의 命令系統을 整備하야 萬一에 備할 必要가 잇슴을 認定하고 原案대로 決定하게 되엿다 이에 對하야 當廳員의 自重을 希望하는 旨의 通知가 왓다 余는 다만 國家非常時에 處코저 하는 外에 他意가 업고 警察의 部門에서도 이로써 普通警察의 憲兵化를 企圖함이 아닌 것은 政府의 數次 言明에 依하야 明白한 터로 從來와 何等 다를 것이 업슬 것이다 이미 諸子의 意向을 各方面으로 聽取하야 그 理由를 認識하엿스나 當分間 이 가튼 組織을 取함은 非常時의 緊切한 要求에 基하야 政務上 不得已 取하는 一時의 便法으로써 今後 情勢의 推移에 依하야 將來에는 그 原則에 回復하야 文官으로써 行政各部를 主宰할 수 잇슬 것은 確言키 어렵지 안흔 바이다 諸子는 잘 內外形勢를 洞察하고 日本對滿政策 [illegible]

坪上次官辭任은 勿論
生駒局長等도 問題
現地支持로 天下를 動搖하든 拓省責任이 남은 問題

【電通東京電話】 在滿行政機構改革問題에 關하야 關東廳을 支持하야 天下를 動搖케 한 拓務省의 責任은 今後에 남은 問題로 되여 잇는데 專任拓相이 업는 關係上 此際 坪上次官의 辭任은 不得已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여 잇고 一方 坪上次官의 當然 問題가 된 모양인데 目下 모도 管理局長과 曩者 一見辭表를 提出한 八田 森重兩課長及 改革案의 起草關係者인 稲垣交通 小河會計 笹川地方의 各課長은 靜觀的 態度를 取함으로 假令 急速히 辭表를 提出하는 일이 잇드라도 坪上次官은 此를 受理치 안키로 되엿다

後任翰長
添田文部次官有力

【電通東京電話】 河田書記官長은 目下病으로 治療中임으로 岡田首相은 十九日朝 後藤內相과 後任書記官長人選에 對하야 協議하엿다 午後四時半 親近한 某方面에 諒解를 求하고 잇는 中이며 在滿機構改革에 依하야 [illegible] 後任書記官長은 決定하기로 되엿는데 文部次官 添田敬一郎氏가 가장 有力하다

民政署遞信局員
總辭職中止?

【大連十九日發聯合】 大連民政署及遞信局從業員도 一蓮托生으로 總辭職키로 되얏다 하야 特히 全滿遞信從業員의 態度가 注目되는데 結局幹部의 慰留가 奏效할 것으로 보인다

買替米賣殘數量
賣却을 施行

【電通東京電話】 農林省에서는 今月十四日에 實施한 買替키 爲한 日本內地米賣却에서 生한 賣殘數量에 對하야 左와 如히 賣却을 行함

賣却豫定數量　七五七,七二六石,八
賣却時期
現品及見本의 縱覽　十月二十四日
申請接受　同　二十五日
賣却決定　同　二十七日
賣却米의 場所及種類 等은 昭和九年度 農林省告示 第三五五號와 同一함

마닐라에 再次
颱風襲來警報

【電通마닐라十九日發】 去十六日颱風이 襲來하야 甚大한 被害를 受한 마닐라市는 十九日 다시 東經一二二五度 北緯一四度의 附近에 新颱風이 出現하야 當地에 向하야 進行中으로 再次 颱風來襲의 警報에 接하고 市民은 자못 不安한 中에 잇다

京城局管內事務協議會

京城遞信分掌局에서는 來二十五日부터 三日間에 亘하야 日本赤十字社朝鮮本部內에서 管內郵便電信電話局長의 事務協議會를 開催하고 遞信精神作興, 業務改善, 事故犯罪防遏, 從業員能率向上, 保險成績向上等 五項에 關하야 協議를 行하기로 되엿다

政民兩黨의 聯繫
臨時議會成立?
實現될 氣運더욱 濃厚

【東京電話聯合】 憲政擁護를 目標로 하는 政民兩派의 聯携運動의 氣運은 最近에 이르러 그 氣運이 顯著히 濃化되여 兩黨首腦部間의 往來도 次第로 頻繁하게 되여 政友會의 度를 加하게 되엿다 鈴木總裁는 數日前 久原, 鳩山, 前田氏等의 首腦部를 私邸로 招致하고 對策에 對하야 隔意업시 意見을 交換하엿다 十九日은 正午 山本(條)氏도 私邸에서 會見하고 種種 協議한 바 잇섯는데 此等 首腦部는 大體로 憲政擁護의 方針에서 精神的 聯携를 行하자는 데 意見一致되엿고 따라 臨時議會前에 兩黨總裁가 會見 [illegible]

辭令

鐵道局技手　內田岩雄
同　杉下正信
(各通)
鐵道局技師(七等)
(全南)道警視　吉崎達美
任癩療養所事務官(六等)
命小鹿島更生園勤務
(警務)總督府屬　羽根兵三
任總督府道警視(七等)
命全羅南道在勤
全羅南道警部　片山浪藏
任道警視(七等)
補咸南道警察署長
(咸北)道警視　齋藤泰
補木浦警察署長
京城帝國大學助手　春田丑雄
任朝鮮公立專門學校敎授(七等)
補平壤醫學專門學校敎授
(光州)郡守　倉元大喜
命全羅南道麗水郡在勤
(麗水)同　嶺崎雷雄
命全羅南道光州郡在勤
(全南)　多田義一
(各通)(新義州)稅關稅官　片岡善太郞
依願免本官　以上

人事·集會

▲今井田政務總監 十九日午後零時四十分 京城發列車로 釜山에 赴하야 海雲臺에 一泊後 歸路에는 夫人을 同伴코 二十一日午前八時二十五分 京城列車로 歸京할 터이다

▲植田軍司令官은 第二十師團秋季演習을 觀戰코저 森田參謀, 熊谷副官帶同 二十一日午後八時十分 龍山驛發列車로 演習地 忠南地方에 向할 터이다

夕刊後의 市況 十九日

大阪 短期 氣配
[illegible]
橫濱 生糸 後引
[illegible]
綿絲 人絹 後引
[illegible]

早稻田大學講義

第一号出づ!!

果然全國에 湧起한 賞讚의 聲! 이 內容! 이 特典! 이 附錄! 이와 가튼 것은 어듸도 업다고 깁버한다, 明日의 飛躍을 期하는 新日本의 新人諸者이여, 無學은 羞恥다, 方針을 勿誤하고, 早稻田에 오라!

中學講義

第一號나와 眞價는 더욱더 證明되얏다,『中學講義로 이 以上된 것은 업다』고, 그도 그럴 것, 改正中學令에 依하야 內容을 全部 改書하고, 새로운 獨特한 敎授法으로 講述한 것이다。가르킨 者의 熱과 배운 者의 意氣가 一致하야 서 내노흔 通信敎育最高의 效果는 本講義에 서만 보인다 只今이 獨學의 絶好機! 即刻入學을!

前期 中學二年 後期 中學三年 各一ヶ年半修了 學費月一圓 八大附錄進呈

高等女學講義

世界의 問題가 恒常日本을 中心으로서 捲起한 今日, 日本의 女性은 女學卒業程度의 敎養을 가질 必要가 잇다。녯 歷史와 훌륭한 背景을 가진 本講義는 獨學女性의 唯一한 동무로서, 恒常 絶大한 賞讚을 밧고 잇다。여러분 꼭 入學하야서, 女高卒業의 學力을 어드라, 第一號는 임의 나왓다! 入學은 只今!

每月一回發行·學費月一圓·一ヶ年半修了·六大附錄進呈

商業講義

大歡迎! 大好評! 第一號를 가진 諸君으로부터 感謝狀이 續續 到來한다 아직 못 가진 者는 一刻이라도 빨리! 그럿타· 只今곳 申込으로 實物을 受取하라, 一見하야 諸君은 前途에 希望을 볼 것이다, 普校를 卒業하고, 實業界에 活躍하려 함에는, 本講義에 依할 外 他道가 업다。只今이 成功의 鍵을 잡을 絶好의 機會다

每月一回發行·學費月一圓·一ヶ年半修了·六大附錄進呈

內容見本進呈
希望者는 葉書로 記하야 申込하시라

文學講義 學費月一圓卅錢·一ヶ年半了
建築講義 學費月一圓卅錢·一ヶ年半了
政治經濟講義 學費月一圓卅錢·一ヶ年半了
電氣工學講義 學費月一圓卅錢·一ヶ年半了
法律講義
電氣工學豫備講義 學費月一圓·一ヶ年了

東京早稻田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二三·電話牛込三四五番

北滿一面坡附近서 二百朝鮮人全滅說

一千士兵團襲擊으로

【哈爾賓十九日發聯合】 십구일새벽북철동부선 일면파(一面坡)남방삼십리가량되는 곳에잇는 조선농촌부락대청천(大靑川)에 조상지(趙尙志)의 인솔한약일천명의 토병이습래하야대규모의 략탈과 폭행을한후 퇴거하엿는데상세한상황은 아직알수업스나 약이백명의 조선농민은 사상혹은 인질로 붓들려가 동농촌은거의 전멸상태라고한다

金浩榮、韓琴等 梁瑞鳳을代役

寬甸、輯安兩縣下에서活動 朝鮮人에强制徵兵

【新義州】 만주동변도일대(東邊道一帶)에근거를둔조선○○군총사령 량서봉이 협화회원박창해(協和會員朴昌海)의패로중국토병에게 피살(아직확실한정보는업슴) 된후일시 행동을 중지하얏든바 최근에이르러 조선○○군참모부장(參謀部長)김호영(金浩榮)계삼군지도부장(第三軍指導部長)한금(韓琴)의두명이 량서봉에대신하야 전군을호령하며 방금 관전현대하원부근(寬甸縣大河原附近)과즙안현석랍자(輯安縣石拉子)부근에서 조선인남자로서 이십세이상 사십세이하되는자에게대하야 징병을하며 세력확장에 노력하는일방 점차강안으로 진출할라는형세임으로 일만당국은 크게경계중이라고한다

義城赤色事件 主謀에五年

昨日大邱法院서求刑 證人은被告主張否認

【大邱支局電話】 경북의성적색독서회(義城赤色讀書會)사건의 오기수(吳麒洙)외이명에대한제이회공판은 십구일 오전십시부터대구지방법원에서강등(江藤)재판장 주심으로 개정되엿섯다 사건은 작년팔월에 이백여명을 검거하엿다가 삼십구명만 예심에넘어가서 다시 전긔세명만공판에 넘어왓섯는데 전긔피고들은제일회공판에 법정에서 검거당시경찰은 ××으로 사건을만들엇고 검사정의 공술도의의가잇섯다고하야 이것을 밝히고저당시사건을 취급한 경북도경찰부고등과 최석현(崔錫鉉) 경부와의성공의를 필두로 증인구명을소환키로하야 십구일에 증인심문과 피고들의사실심리가게속되엿다 증인들은 피고들의주창을 전부부인하야 피고들을위하여서는 불리공술이엇다 심리가 끗난다음 립회검사는오기수에게는 징역오년 오병수(吳丙洙)와 김규복(金圭福)에게는각히 징역이년반의 구형이잇고손(孫)리(李)량 변호사의변론이 잇슨후폐정되엿다 판결언도는오는이십륙일이다

京城放送局大邱의밤

경성방송국에서는 오는이십륙일과이십칠일과이십팔 사흘동안에 대구의밤을 개최하기로 되엇다 방송순서는여러가지로 자미만흔 것을 편성하엿다 한다

'祭'酒에醉해 독기로暴行

피해자위독

십팔일밤 열시쯤에 시내신교동(新橋洞)칠십이번지 박명근(朴命根)(四〇)은시내효자동(孝子洞)일백칠십삼번지김부성(金富成)(三二)에게독기로머리를마저서 중상을입어 생명이위중하다하며 가해자김부성은 종로경찰서에서붓잡어다가취조중이라한다 김부성은그날『얼사둥둥이』하는데서 술이취하여가지고 대스롭지안흔일로 피해자박명근과 입다툼을 한끗테드듸여그런란폭한행동을한것이라한다

窃盜行脚大師

【仁川】 고양군 숭인면 경국사(高陽郡崇仁面慶國寺)승려최보감(崔寶鑑)(三三)은 시내 본정(本町)전중(田中)상점에서 문전걸불을하다가 주인이 업는틈을타서 수제금고에잇는 현금이십원을 절취도주하랴다가 점원

◇大盛況일운玄氏獨唱會…◇

玄濟明氏의 獨唱會大盛況

滿場聽衆이再三喝采

연희전문학교 주최의현제명(玄濟明)씨독창회는 작십구일밤팔시시내공회당에서열리엇다이번가을음악씨ー즌에 처음 열리는가장인끼잇는 음악회라 만도의음악팬들은 정각전부터 몰리어장내는 대만원이엇다 막이열리자한곡조 두곡조식 순서가진행되는대로만장의 청중은 장중하고도 섬세한씨의노래에 재삼갈채를보내기를마지안허장내는극히긴장하야 음악회는 십이분의성황을일우고동구시반에막을치엇다

…에게발각되야 소관파출소로 동행중에 도망한사실을 비롯하야 시내각처에서 전긔와가튼 행동을하든중 지난십칠일 오후삼시경 시내내리(內里) 이백칠번지 근방을 배회하든중에 소관서원에게 체포되엿다는데 그의회수에는 십여개의지갑과 십여매의 전당표가 잇섯는데 그외에도여죄가잇는듯하야 상금 엄중취조중이라한다

注意한電車跣下

십팔일밤열시오십분에애오개(阿峴)고려의원(高麗醫院)간호부리순이(李順伊)(二九)는 마포방면으로 가는 전차를타고가다가 애오개전차정류소에 이르럿슬 지음에채정거도하기전에뛰어나리으로가 엎대저서 입술이한치가량 찌저젓는데 약ㄱ주일동안 치료해야될상처이라한다

京城赤勞事件 昨日에結審

最高三年半을求刑 盧四石等의七名

경성적색로동조합사건관계자칠명에대한 제일회공판의 사실심리는 석간긔보와 갓거니와오후한시반부터 속행하야 미심리의관계자 김홍현、조영식、박인선、김홍원、박시병등다섯명의심리를 끗마치엿는데 이들의답변도대개는 로사석、리복기량인의진술과 대동소이하엿다 이가티사실심리가끗나자촌전(村田)검사로부터 로사석외륙명에게다음과가티 구형하고 오후네시이십분에 폐정하엿다 이들의판결기일은 오는이십륙일로 정하엿다

氏名	求·刑
▲盧四石(二九)	三年六個月
▲李福基(二四)	同
▲金鋪鉉(二五)	同
▲趙英植(二四)	二年六個月
▲金興元(三三)	二年
▲朴仁善(三三)	一年六個月
▲朴是秉(三一)	同

가마귀떼가 高壓線切斷

平壤市街暗黑化

【平壤】 적은새떼가평양전시가를 암흑세계로 만드럿다고하야 큰이야기거리가 되엿다 십륙일 오후 여섯시십삼분경헤일수업는만흔가마귀가떼를지어 평양의상공을 날아가다가금기야송전선을끈허서평양전시가를한시간십삼분동안이나암흑화케하여 소동을 일으켯스니 부내영정(榮町)남단제칠호와제팔호전주와의 중간전선에 가마귀무리가안저 소동을 하는바람에합전(合電)의계전긔(繼電器)가 폭발하면서 고압선 여덜개가 지상에떠러저 푸른빗을 내으며이로말미암아 온갓 송전긔관에고장이 생기어 평양의각상관기타각처에서 소동을일으켯다

합전에서는긔술원이총출원하여공급수리를 한결과 평양부내만은 한시간십삼분후 복구되엿다지방송전은 그보다도 훨신늣저젓다

二次三次로 二百五十戶

來月中에또輸送

경남수해지 리재민을 렬구로이번 제일차의 입천팔십명이백호를 수송하야 안정식인후 제이차로 십일월이일에 경북에서 일백팔십호와 제삼차로 십일월칠일에 전남북에서 일백사십호를 각각수송할예정이라는데 이것으로도 지난여름수해를당한 리재민을 부분적이나마 구제한 모양이다고한다

求景에눈팔려 電車에치어

시골서 서울구경을 올라온사람이 도회지의 요란한교통 기관에희생을 당하는일이 만흔중십팔일오전열두시 경에도 함남함주군흥남신상리(咸州郡興南面新上里)양룡진(楊龍鎭)(四〇) 이라는사람은그의친구한사람과시내남대문통상점을 십번지압 차마가빈번하게왕래하는로중에서경성신사례제의 행렬을 구경하다 가엽흐로지나가는 자동차에 놀래어 건너편인도로 드러서려고 전차선로를 횡단하려 할지음에때마침 남대문 방면에서 드러오는 경전 제십호(運轉手柳利穆)전차에치어외편쇄골이부러지고타박상기타치료사주일의 중상을입엇다 피해자는수시옥정(旭町)리희호(瀨戶)의원에서치료중이요 전기운전수는 소관본정서에서 취조중이다

戀愛結婚後二年만에 同姓同本이라고離婚

因襲의罪나理解의不足이나 鎭南浦某敎員의怪離婚事件

【鎭南浦】 중등교육을바든청년남녀가 결혼하여 리상적가정을 일우워가지고 이년간이나단락한생활을하면서 자식까지 나흔후 결혼신고와 출생신고를하려하니 조선재래의인습상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고하야호적상으로는 부부가 될수업다고하야 가정을 깨트려버린 리혼비극이 잇다 남자는 모사립학교 현직교원 리모(李某)란사람이요 녀자도 역시가튼교회에 단니는 리모로 찬양대와주일학교등 가튼긔관에서 일하여 오든중 지금으로부터 삼년전 남자는 이십이세 녀자는십구세시에 첫사랑의 끈을매저 동성동본이란것을 알면서도 약혼을한후 목사님의 주례로백년의구든 맹세를하고 성대히결혼식을 거행한후이래 이년간이나 지내오날에 동성동본을구실로종교학교의、교육자로 자식까지나흔안해와리혼을하엿다하야비난하는이도업지안흐나실은써어진인습을부인하는두사람사이에는호적상부부가되지못하여도 유감업시 해로하기로 결심하나구습에갑히저즌 부모들는 호적도못하는곳에는 딸을 보낼수업다고 고집하기시작하야 점점량방에 감정이깁허가게되여 재래인습과 리해업는부모를 원망하면서 눈물겨운리혼을 하고말엇다는데 이것이과연 인습의희생이나 방량리해의부족이냐 큰론란거리가되여잇다

滿洲國警察隊行悖 同胞部落에衝火

海城縣境老網堡部落에서 民家二棟八戶가全燒

【奉天】 지난십삼일 해성현경로망보(海城縣境老網堡)부락거주의 박삼룡(朴三龍)외팔호의 동포농가에 만주국경찰대십여명이 순회도중 돌연박삼룡에게대하야 『이삼일전에 비적이온일이업섯는가?』하는질문에박삼룡이는 『비적은지난사월에한번 칠월에한번 왓다가고 팔월에잠간 왓다간것 박게업섯다』 고사실그대로 대답하엿던바 경찰대의 지도관은 거즛말을한다고하야 불문곡직하고 전긔박씨를구타하야 중상을식힌후 동포민 사십여인의 간청、애소도 듯지안코 곳부하를 식혀 거처하고잇는농가에 불을질르게하야 이동팔호(二棟八戶)가 전소되엿다는데 거처하고잇든집과 가구를태워버린 농민은동지방의 지주로(盧)모의 호의로 방금 합마소(哈馬召)라는곳으로 피란케하엿다한다

運動競技

【電通東京十八日發】 東京六大學野球早立二回戰은 十八日午後二時十七分부터 戶塚球場에서 早大先攻으로開始 結局七對三으로 早大勝

早大7 立敎3

【電通東京電話】 東京大學野球慶應對法政第二回戰은 十八日午後二時부터 神宮球場에서 慶應先攻으로開始、結局五A對○으로法政勝

法政5A 慶應0

大阪地方在留朝鮮人問題 洪鍾仁記(九)

複雜한借家爭議

借家와빠락집이大部分으로 問題는끈일새업시

대판에는 조선동포들의 살림사리형편는 그들의주택에서 전부가표현되엿다고할것이다그들이의식만은 어떤방식으로 엇는다하도 주택문제의 해결을보기전에는 언제든지 생활의향상이란것은어들길이업슬것이다그곳가잇는 동포자신들로도 하로밧비해결하여야할바이려니와행정당국자로보던지 일반사회의립장으로보던지 가장 긴급한문제이다전입에도말한바와가티 첫재[?]유업는 쓸만한 것을 어들수 업섯든사정도 크거니와 살림형편이 저급하다고 저땅사람들이 대접해서 집을잘빌려주지도 안흠으로 우선어떤집이던지 비바람이나 피할만한곳을 작만한다는것이、저곳동포들로서 주택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는수단의첫 계단이되여잇섯고 오늘까지그리하여 왓든것이 금일그들의주택문제로서 가장큰 사회문제가된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집에서살고잇는가를 대략말 하면지역으로는 금번수해가 가장심하엿든대정구(大正區)지화구(地花區)항구(港區) 서정천구(西淀川區) 주길구(住吉區) 방면에 좀나으면 셋집을어던가그러치 못한것은 제손으로빠락가치 『빠락』을짓고 사는것이 만코그외에는 밧을 빌려가지고사는것이 또만타 부분적조사이나마 대판부의 조사수자를 보면 에대한조사는 보통가옥에 사는것이일만일천삼백칠십구세대이고빠락집에사는것이사백오십륙세대인데이것을다시나누어보면 ▲자기소유로된것이、보통가옥일백오십이세대 빠락이 이백삼십이세대 ▲셋집이、보통가옥에 륙천륙백구세대 빠락이 일백칠십사세대 ▲방만빌려잇는것이 보통가옥에 사천륙백십팔세대 빠락이 오십세대 등이다

◇

그런데 보통가옥을 소유햇다는것은 자기힘으로 완전한소유관계를가진것이잇스나、빠락집의소유라는것은、알고보면 한심한것이다、그것은、잇슬집이업서서 빈터에게손으로 되는대로 한정도의것이 못되는것이 대부분인데 그중에는 지주들의량해를어더가지고 지은것도 잇스나대부분은 지주의허락이업시 짓고사는것이만허서 지주와의사이에땅을 내노라는등 집을헐라는등문제가복잡하다그러고세인집으로보아도 그중에는 그대로쓸만한집도 만키는하나 루추한고러락한집이 또만흔데 여기에도집세를냇느니 안냇느니 집을고처주느니 안는니하고 집주인과분규가만타

◇

그런데 그런분규의 해결이란것은원만한것이업다 집주인이나 땅주인은어떠케서던지 내쫏는다는것이안목이되여잇고집에들어잇는사람들로서는어떠케해서던지집을내놋치안흐려는것이안목이되여잇서점유(占有)관계를될수잇는데까지계속하고잇다 이런것은 하필 조선사람뿐에게만한한것이 안이라 저땅사람으로도 집을못가진 빈곤한사람들은 어느사람의 집에던지 자기수십의 유리한조건으로 들어살려고하는것은 공동된관렴이 되여잇다 그래서 조선사람들도집주인이나 땅주인에대한 항쟁의방법은 저땅사람들의 가장령리한법률적행위를 본바든것이다 그러고 집주인이란사람은 어떤곳을물론하고 그리착한 사람들만잇는것이안이라 분규의시초가 어느편에서부터시작되엿는가하는것도한입으로말할수업다요해히고 구중에는 사람조흔집주인도잇서 어렵게사는 조선동포들의사정을량해하야호의로집을빌려주는이도업지는안타그런데주택문제는 집주인과의 분쟁도문제려니와 그보다는 집가튼집을쓰고살지못하고잇는것이해결해야할근본문제이다

【寫眞說明】 동성구저사야(東成區猪飼野)조선인이밀집하여사는곳 시장에모인 조선부인네들。

尼崎市兄弟感謝狀

지난번대판방면의대풍수해중에만흔손해를 입은병고현 니기시(兵庫縣尼崎市)동포로부터보사에아래와가티감사장이와다

◇感謝狀

驟風한玄海灘을 건너東西로漂泊하는今番千古未曾有의 關西風水災로 人命까지빼기고家屋衣類食糧等은오로지 그자최조차볼수업는 不時의禍를입고仰하와는天에、俯하와는地에、다만엇줄모르고 自驚이요오즉漠然할뿐이올터니 다행히貴社에서는누구보다도빨리報導를飮渫케하야故鄕에잇는兄弟들로하여금其實狀의慘禍를아르킴뿐아니라貴社救護班神戶支局에서는支局長以下 總動員으로눈물겨운개주신慰問과만흔物品을바들때에그늣김의큼은 筆舌로다告하자 못할바이옵시다 (中略)

래옵고두어자글발로尼崎罹災同胞들代表하야 謝禮를올립니다

一九三四年十月十一日

尼崎市罹災同胞代表 金鳳道 李學道 白

朝鮮日報社長 貴下

理論實踐基調 朝滿靑年指導

【奉天】 동북인민혁명군독립사(東北革命人民軍獨立師)와왕전양(王殿陽)이 합류한 반만군의 최근훈련은 점점공산주의화하야 조선공산당원한진지(韓震之)의지도하에 훈련되다는바그교재의 주요한것은 맑스、레닌、스타린、트로츠키등의 리론한설과 중국혁명의실제운동을 과조로하야 이십세전후의만주인、조선인자제들로 훈련는 조직히되

初秋のおとづれ

初秋에흔한 冷寢과感氣로해서 胃腸을害키쉽다

消化를잘되게하고身體를 살지워强케하는法

가을이맛이라、고 初秋에는갑작이食慾나는것입니다、이것은夏季에더위로해서、食慾이減退하야夏瘦를보인身體를恢復하고、튼튼히살지워서、겨울이되어올지라도 치위에對한抵抗力을맨들라는、生理的自然의要求인데、初伏에夜間의冷氣로寢冷과感氣가되고、그로해서、胃腸이나빠진사람과平生胃腸이弱한사람은、이重要한時季에

食物이胃腸에 滯하야食慾이減하고、胃腸이傷하고、배가꾸르릉거리며腹하고설사하야氣分이不好하고、아모리맛잇는것과滋養物을먹어도、도리혀胃腸을괴롭게할뿐이오、피로나살로가지안코며、漸漸甚하게衰弱하는故로、根本的으로胃腸그것을튼튼케하고、消化機能을活潑케하야、身體의元氣를조케할窮理가緊要하거니와、이初秋에

夏季의衰弱을 充分히恢復치못하고지나면、가끔感氣가걸리고、그것이原因으로呼吸器病따위의餘病을誘起할念慮가잇거니와、初秋에胃腸을튼튼케하고、身體의元氣를强하게하면、다가體內의五臟六腑의作用도、다가치旺盛해지는故로、身體도튼튼히살지고、頭腦도조하저서元氣潑剌한健康氣分으로재미잇게活動할수잇게됨니다

健康의非常時 인初秋에

滋養强壯劑인養命酒를朝夕에조곰씩먹으면이만치身體에힘이나는조흔것은업다고、多數實驗者의眞實한소리가漸漸世上에評判이되어、非常히有名해저서、지금에는、政界、實業界、學界、藝術家、스포-츠界、學生間、花柳界、一般家庭에이르기까지愛飮家가더욱더욱만하젓스므로누구나한번은먹어서、얼마나身體에有益할지를體驗하십시오。

胃腸과不眠으로고생터니 지금에는이러케튼튼하오

宮崎縣兒湯郡 佐藤やゑ子

나는三年前부터胃腸病으로苦辛하야、氣分이不好하고、이때문에죽거니하는念慮로神經衰弱이되어夜間安眠을못하며、그때문에藥이란藥은다써보앗으나、이러타하는効果를못보고지내다니、養命酒가썩조타고하는말을友人에게듯고、곳藥店에가서四回瓶을求해먹은今漸次로食事가맛이잇게되고、따라서顏色이조하지고、元氣가나는故로、조곰씩일하게되엇습니다、그러므로밤에도安眠을하게되고、이러케기뿐일은업다고 連續服用하는요지음에는今혀前대로튼튼한身體가되고、참으로感謝하고잇읍니다。(九年四月四日受付 寫眞은本人姓名은假名)

小瓶進呈

意外인만큼好感을주는 深山仙酒로서芳香美味上等의葡萄酒보다더맛잇는것을實物로紹介하기爲하야養命酒試飮用小甁一本無料로贈呈中이오니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곳葉書를보내십시요

滋養强壯劑로……

◇强腦强精의目的
◇胃腸衰弱한사람
◇神經衰弱잇는분
◇老衰숨갑븐사람
◇根氣薄弱한사람
◇疲勞倦怠한사람
◇貧血冷病잇는분
◇呼吸器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産前産後의婦人
◇病後恢復期等等

信州伊那의谷名産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卅錢 大瓶 三圓 德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에잇슴

品切될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시옵 前金注文은送料를負擔하고代金引換은實費를밧읍니다

注意 가짜가잇으니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目하시고사십시오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釀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三九八番 振替東京六八五五番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龍藏氏
醫學博士 吉田義治氏
醫學博士 山中嶽之氏
醫學博士 [illegible]田正[illegible]氏
推奬

眼疾에 大學目藥

朝起後에 大學目藥을點眼하면 其爽快한心神

눈은더욱健康케되고ㅣ眼疾은곳治癒됨ㅣ大學目藥은片時不離할、나의寶貝입니다。

大學目藥은 效力第一로 世界에有所聞한 目藥의大王이요 그效能의優秀함은、有名한眼科專門의五大醫學博士가 一齊히 推奬한것만하야도 分明한데다가、世上사람들이『第一조흔 目藥이다』라고爭先愛用하야、大學目藥이 世界目藥中에서第一信用이잇고 第一잘 팔이는것으로보아 알수잇습니다。 이럿케 훌융한目藥이 日本에서 製造發賣되는것은我國醫學界의 世界的名譽라고하겟습니다

엇재서大學目藥이世界에第一인目藥일까?
그까닭을말슴하야드리지요

第一 大學目藥原料中에는 專賣特許인『올바오레긴』이配合되야잇습니다。이것은 世界의어느目藥으로도 追隨치못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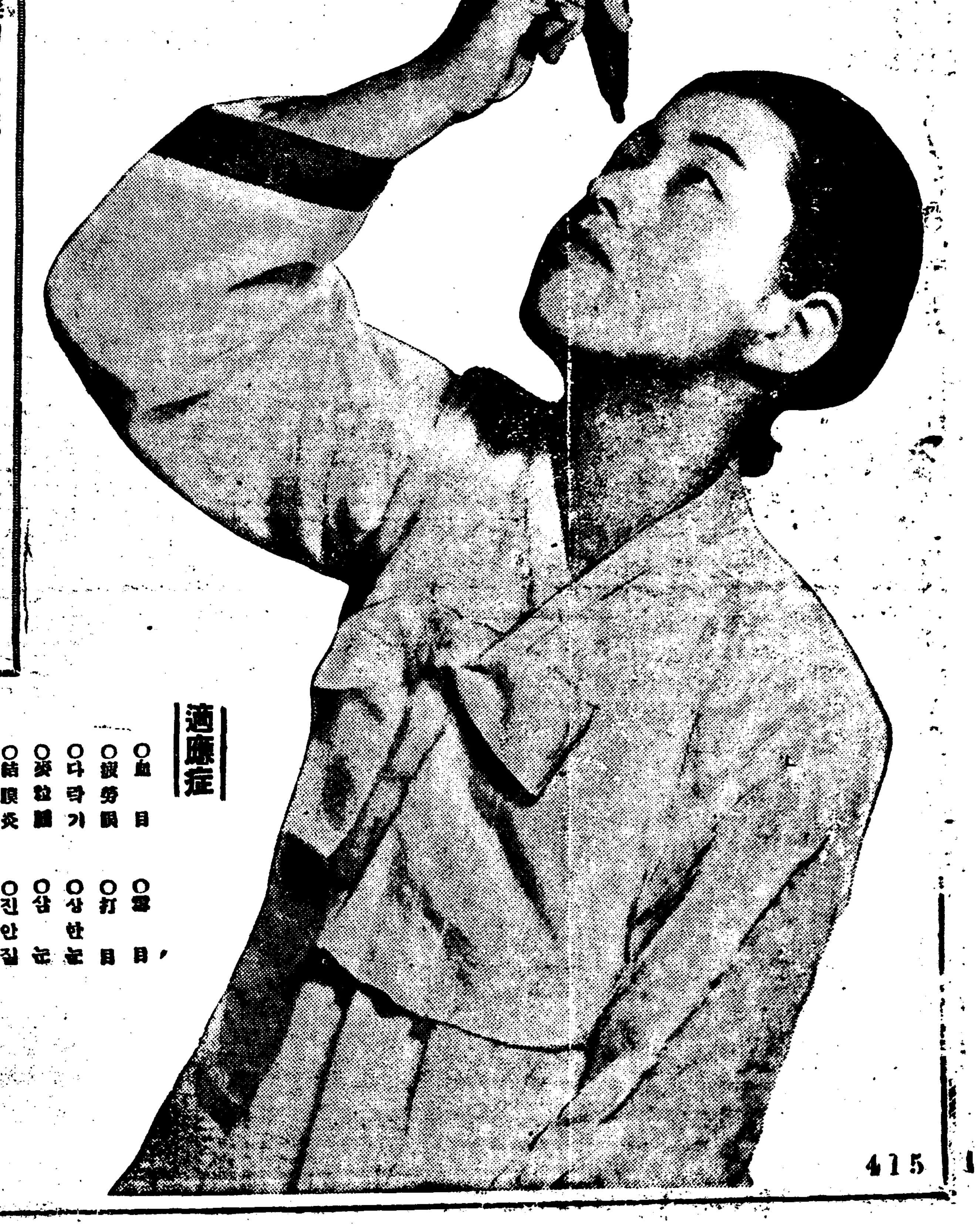
第二 그런結果、大學目藥은、모든眼疾에神効잇는治病作用과눈을 깨끗치하고 아름답게하는美眼作用과、눈에有害한紫外光線을 防止하는紫外光線防止作用等三作用을一時에낫타내는것입니다。
한가지藥으로三作用을兼備하야、眼科藥으로서 理想을實現한目藥은、모든目藥中에서도、우리大學目藥이잇슬뿐입니다。

第三 그리고、大學目藥은、압흐거나、쓰리지안코、氣分좃케有効한것이가장자랑할만한特長입니다。
『氣分좃코 愉快하게眼疾을 治癒한다』는것이他藥의 追隨不能하는大學目藥의特長인同時에、藥質은아모리 오래두어도變質하거나腐敗치안어서、어느때나 安心하고 使用할수잇는것이、大學目藥의世界的으로信用을엇은理由입니다。

第四 更히、大學目藥에는一瓶마다、大學洗眼藥이라는 눈을씻는藥이添付해잇습니다。眼疾을速治하랴면、눈을씻고 目藥을넛는것이 조흔것은、누구나 다아는바인데目藥에 洗眼藥까지添付된 親切한目藥은 大學目藥外에는 업습니다。그뿐아니라、大學洗眼藥은 世界一인산데ㅣ뿌衛生包裝을하야 가장淸潔히 包裝되야잇슴으로、누구나大學目藥의周到한데는 賞歎치안는이가업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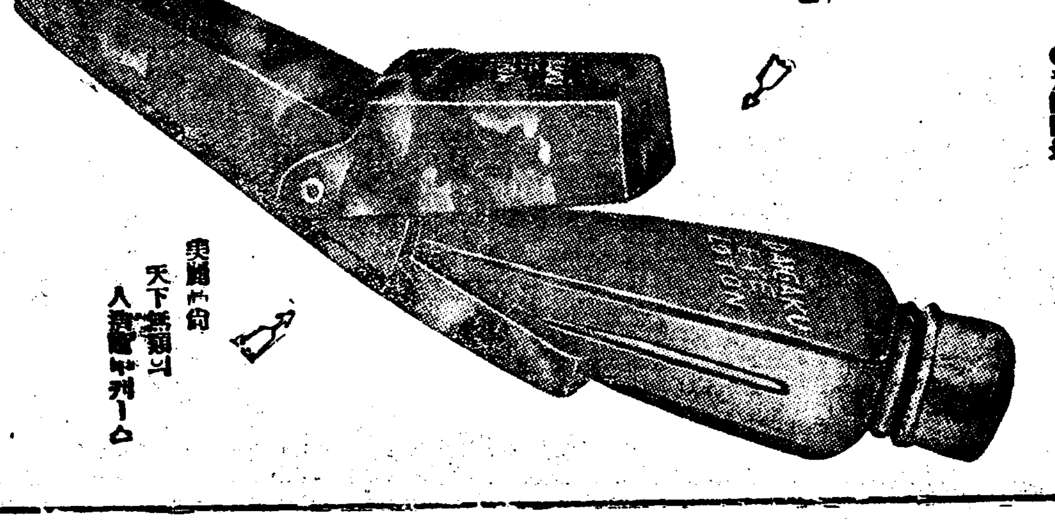
第五 大學目藥에는、十歲以下어린이를爲하야特製한 小兒用大學目藥이잇습니다、學理와經驗에依하야、어린이눈에맛도록製劑한 小兒用大學目藥이 世上父母된이들에게絶大한信用을밧는것도 當然입니다。

第六 最後로、點眼容器와人造鱉甲케ㅣ스에對하야 한마듸말슴을 하겟습니다 大學目藥의容器는新案特許의自働點眼容器입니다。이容器는、그대로自働式의點眼器인 便利한것으로、上部의고무를손으로누르면一滴식마음대로目藥이 떠러짐으로、누구나自由로使用되고、또一滴도헤실되지안음으로第一經濟的이요衛生的입니다。이點眼容器는、넘머지거나、젓구루드러도目藥이쏘다질念慮가 업슴으로、携帶하기에便利한대、더一層携帶하기便利하도록 近代的美裝을다하야、發明한것이、人造鱉甲케ㅣ스입니다。人造鱉甲케ㅣ스는、조금도틀이지안는、美術工藝의粹를다한 優美高尙하고便利한 케ㅣ스로서、藥의케ㅣ스로는勿論、다른케ㅣ스로서도 아즉 다시업는 훌융한것이라고評判이좃습니다。願컨대、여러분도、每日아침起寢하시거든잇지마시고、大學目藥을點眼하십시요。그리고外出하실때에도、반드시포케ㅣ트에넛코단니시다가、생각나시는대로點眼하십시요、여러분눈은어느때나아름답고永久하게健康하실것입니다。



適應症
○血目 ○疲勞眼 ○다락기 ○粟粒腫 ○結膜炎 ○눈이안질 ○(爛目) ○淚眼 ○도라홈
○雪目 ○打目 ○상한눈 ○삼눈 ○진안질 ○쑤시는눈 ○鍼目 ○호린눈 ○光線眼炎

衛生便利 이以上업는 自働點眼容器



人造鱉甲케ㅣ스付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케ㅣ스)	五十錢
補充用特大瓶付(同)	一圓

케ㅣ스업시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製造本舖 大阪東區北濱一丁目 參天堂株式會社

現職定平署巡査 區長을毆打致死
酒席에서些少한言爭끄테 加害者檢事局送致

【定平】함남정평경찰서에근무하는탁두원(卓斗源)(二三)이란 순사는 상해치사혐의(傷害致死嫌疑)로지난 십팔일 오후아홉시사십칠분발 렬차로 함흥검사국으로 송치되엿다 사건이 발생되엿다는데 이제상세한것을 탐문한바에의하면 지난십일 여섯시경에부내면태양리(府內面太陽里) 구장김명락(金明洛)(四一)과 괴태양관김리관(金利寬)주점에서 가티 술을노누다가 사소한언쟁이 생기여 싸호다가결국한 명락은 구타를 당하엿는데그 구타가 원인이 되엿든지지난 십사일에 무참히 죽어버리엿슴으로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장정검사(長井檢事)가 함남도립의원의사를 대동하고 현지에와서 시체를 해부한결과상해치사혐의로 탁두원을 그와가티 송국한것이라한다

病苦、生活苦로 勞働者縊首

【蔚山】 지난십사일 오후다섯시경경남 울산군 하상면남외리(下廂面南外里)에서는어떠한남자한명이 길거리에잇는 소나무가지에 목을매고 자살하려는것을 순사가발견하엿다는데 그자살하려든 당자는 동면동리(東里)로동자 오모(吳某)(四五)란 사람으로 집은구차하고 계다가설상가상으로 자긔가신병에 걸니고보니 약하청은고사하고 가족도먹여살릴 길이업슴으로 그와가치 자살코저한것이라는데 목적도달치못하고 눈물흘니는 광경은참아볼수업섯다고한다

母女寡婦變死事件 强盜所行으로判明
강간에반항한다고죽이고말어 犯人光州署에被逮

【松汀】 한방안에서김피잡는 두과부모녀를 교살한후 범행을감추기위하야 교묘하게 자살한것과가티 만드러 노은흉대단하게도 한동리에서경찰의 행동만엿보고잇든 아인조강도가 마츰내광주서와 송정주재소원의 손에체포되엿는바 범행이 교묘하고 증거가전무하기로난 부산마리아사건 이상으로 일반의흥미를집중하고잇섯다 사건의내용인즉광주군송정면신덕리(光州郡松汀面新德里)과부리금순(李今順)(六一)과 그의딸역시과부인김순례(金順禮)(四四)는 다소의재산을가지고 일수도노코 남의바느질도하야 생활은 유족하엿다는바 한동리에사는한기만(韓基萬)(二二)과 송정리시장등에서사는 김홍조(金洪祚)(二五)는 연약한 여자들만이 지내고잇는것을기화로 추석이박두한 음팔월십일일심야에 강도의목적으로 침입하야 김순례의 잠든태도를본하기만은 수욕부터 채우기위하야 강간코저하엿든바 김순례는 잠결에놀라 반항을하자 억세인손목으로 목을졸라 질식케하엿스며 김홍조는 칠십이넘은리금순에게 금수가튼행동을 하려고하엿스나 금순역시잠을깨여 항거코저함에 김홍조는 자긔가신고갓든 고무구두로 금순의뒤시동수를 몹시따려 뇌충혈을 일으켜 즉사케한후 흉악한 그들은 범적을 감추기 위하야 자살한것처럼 평상시와 갓치곱게 누인후 이불과 요를 덥퍼둔후 증거될만한것은 추호도남기지안코 각기집으로 유유히도라가경찰의 행동만 엿보고잇다가 액운이진하야밀경체포된것이라한다

靑松鑛業所에서 鑛夫二名死傷
鑛石이崩落하면서

【龜城】 지난십일오후신일시경귀성군방현면창송동(方峴面昌松洞)에잇는 청송광업소광부위윤길(魏允吉)(三四)은 작업중갑작이 괴석이문허저 그만삼시간후에 절명하고 리친흘(李振屹)은두부외수처에 약시오일간치료를요하는 중상을 입엇다고한다

地料完納不拘 車馬를또競賣
商銀土地管理人의暴擧

【仁川】 시내화정(花町)일정목오십구번지옥치정일(玉置精一)(五一)은상업은행 인천지점의토지관리인으로서 차지인 들에게무리한 행동을감행하고 잇다는바 그중에도심한것은 시내화정이정목 일번지강응찬(姜應贊)(五一)의말(馬)시가이백원 자리를 일원사십전문제로 차압하야십오원에 경매하야 버린사실이잇다는바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전긔강응찬은 금년일월까지에체납금 십칠원에대한 지불명령을밧고 삼원사십전을 지불하얏든바 그잔금십삼원 륙십전에전긔와가티 차압을 하얏슴으로강씨는 그즉시자긔 지초납입장에 잇는대로십이원 이십전을지불하얏스나 옥치의 장부에는 일원사십전이터하야잇슴으로도강씨는 그것은쌍방이 조사한후에 지출하겟다고하얏슴에도불고하고 전긔차압물을 십오원에 경매하엿다는데 이를분개한 강씨는지료완납 하얏는대도 차압해재를하야 주지안앗다는 것으로배임횡령죄로 고소를 제긔하얏다는바 일반은전긔와 가튼리인을사용하고잇는 상업은행에 대한원성이자못놉다한다

姦夫間에格鬪 被害者는死亡

【保寧】 서천군비인면구복리(舒川郡庇仁面九福里)에거주하는 구명회(具明會)(四三)와 동군서면 원두리(西面元頭里)에 거주하는 김상옥(金相玉)(三二)은 녀자하나를 무고 삼각관계를하여 오다가 지난팔월이십일에 대격투가 일어나 피해자구명회는 서천 경찰서에 고소를제긔하엿든바 전긔피해자는 지난십일에 사망하엿다하며 가해자 김상옥은 종적을감추엇스므로경찰당국은 엄탐중이라한다

保險魔韓道權 奉天에서被逮

【新義州】 긔보=팔천원보험사긔사건으로 세인의 이목을놀라게한 사건의장본인이요 그간만주방면에 도망하엿든 한도권(韓道權)은 십팔일 아침봉천방면에서체포되얏다는데탐문한바에의하면 봉천방면에서 중복으로변장한후 변성명까지하고 단이면서도 이미체포된 주범자공재득(孔在得)이와는서신으로사정을 통한모양이라하며 그의실형한중권(韓仲權)은지금중국하북성(河北省)방면에잠복한듯하나 아직체포치는못하엿다고 한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사취한보험금팔천원 전부를 공제득이가점수한후 피보험자의 가족에게는 이천여원밧게 떼주지안코 남어지 전부를자긔가 차지한후기타 공모자들에게 얼마씩 분배하엿다하며 또 최공순(崔公淳)이와 공모한후 피보험자의 가족에게 추가보험 십마원을 강제로하게 한후 제일회불입금을 반엿식분배한 사실도잇다는데 추가보험을 하는데도 피보험자의가족중에는 십마원가입에 자격자가업다고하야 공제득 자긔의가족명의로하엿다고한다

畜牛愛護와 色衣大宣傳

【金川】황해도금천군농회(金川郡農會)에서는 지난십일에종모우품평회와 색의장려 선전대회를개최하엿든바 성황리에 마추엇다고한다

苦力給料分配中 强盜가덥처强奪
追擊奪還、一名射殺

【安東縣】 십륙일오후륙시반경 안동현륙도구 남사조동상점목 제목상 대이상회(大二商會) 쿠리(인부)숙사에서 쿠리에게 지불한 금료팔백원을 감독이나노아주고잇슬지음에 돌연 각자권총을가진 강도삼인이 나타나서 협박한후 강탈도주하엿다 급보를접한 안동서에서는 서장이하 삼십여명이 급행하는일방각요소를 경계하든중 하륙도방면으로 도주하는 전긔강도를발견하고 추전상회(秋田商會)부근에서 쌍방이발회 약이십분후에 강도일명을사살하고 피해금전부를 탈환하엿는데 범인이명은아직체포치못하엿다한다

硝石陸揚機에 少年人夫慘死

【漢芝面】 십륙일 오후네시반경 시외 서빙고(西氷庫)압강 채석장에서는 십팔세의 소년이 륙양긔치차(陸揚機械車)에 걸려 무참히도죽어버렷다는데 그는시외 서빙고리(西氷庫里)이백구십번지 박홍석(朴弘石)의장남 경춘(景春)(一八)으로서 길송채석장(吉松採石場)에서 로동을하다가 그와가티 무참히죽어버렷다고한다

京都朝鮮基督教會 禧年祝賀大會
當地中央禮拜堂에서

【京都】 재경도조선긔독교회에서는 오는십구일부터 이십일일까지 삼일간 경도중앙례배당에서 희년축하대회를 성대히거행하려고 방금준비에 분망중이라고한다

出沒自在하는 寺刹專門强盜
前後五個所에出現

【釜山】 십오일동래서로부터 부산서에도달한 통첩에 의하면 십사일밤 동래군남면망미리(望美里)영주암(瀛洲庵)에 강도가 침입하야 일금삼원을 탈취도주한사실이잇섯는데 지난번의부산복도북천사(福泉寺)의강도사건을위시하야 귀포를교당의김해군하동면(下東面)하의오개소절갓으로 도라단니면서 동일한수법으로 강도를행함에 불구하고 아직까지체포못한 소관서는 초조하야 대활동중이라한다

地方人事

▲尹達鏞氏(神父)江華邑聖公會轉任人事次去十七日本報江華支局來訪

今二十日夜 全平壤

第六回籠球聯盟戰

午後七時半부터 崇專體育館에서 入場料五錢均一(但場內整理費)

每週火、木、土曜試合

◇主催 崇專基青體育部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光州 秋期大講演會

宗教와日常生活 崔興琮

經濟와日常生活 崔元淳

全南金融의近況 金讚欽

▲時日 十月二十日

▲場所 光州高普講堂

◇主催 癸酉俱樂部

◇後援 東亞、朝鮮兩支局

(主婦之友十一月號で大評判の重寶無類な別冊附錄)

編物と裁縫の防寒物百種の作方

▲どこの御家庭でも永い間求めてゐた重寶この上なしの大附錄、編物と裁縫の防寒物百種の作り方を一册づゝ贈呈するので大評判です。▲作り方は全く簡單で、一時間で立派に作れるものも澤山發表しました。どれもこれも一流先生方が考案された新案物ばかりです。▲寒さ知らずの防寒着、一家に一册は、ぜひ無くてはならぬ重寶附錄だと、どこでも大評判です。

◢赤ちゃんの防寒着一切（赤ちゃんに風邪をひかせぬやう工夫した自慢の防寒着）

◢女兒用の防寒着一切（二三歳から十歳までの可愛らしい流行の新型一切發表）

◢男兒用の防寒着一切（十歲頃までの輕快な男兒用防寒着で特に運動向に工夫）

◢婦人用の防寒着一切（こんな重寶なものがあるかと誰方もびつくりされます）

◢男子用の防寒着一切（下着類衣はおろか新型和服コートまで發表して大評判）

◢老人用の防寒着一切（御老人がキツト喜ばれる溫かい新案の作り方で大評判）

横山先生 吉岡先生(右)

あゝ關西大暴風雨が生んだ尊き犧牲愛!!

教子を救って慘死した吉岡先生の美談

本誌慰問記者の血淚記（あゝ尊き哉、颱風慘禍の中にその身を殺して七人の生徒を救つた吉岡藤子 横山仁保子兩先生の遺族弔問の眞相記。淚なしに讀めぬ大感激の血淚記事）

南大將夫妻に國防問題を聽く 山田わか（前陸軍大臣南大將御夫妻を山田わか先生が訪問されて國防問題に就ての婦人の覺悟を公開された大評判の記事）

◢良人に愛人が出來たら妻はどうするか 竹内茂代（理窟ではない、實際方法です。この場合はどうすればよいか。奥樣方は早く御覽下さい）

◢松竹少女歌劇人氣スターの漫談會 安達雪子 吉屋信子（水の江瀧子、オリエ津阪を初め十一人のスターが吉屋先生と漫談會を開いた大評判の讀物）

旦那樣をチャームする奥樣の祕術

若奥樣の愛嬌術の練習法

伏見信子孃と森律子さんの實演（この愛嬌術を練習しておけば旦那樣の愛を獨占すること請合です。お試しあれ。）

若奥樣と令孃の明朗化粧法（若奥樣やお孃樣方の新しいお化粧法です。方法が簡單で誰方も見違へるほど美しくなる祕法です。手數もお金もいらないので大評判）

幸田延子先生發表ピアノ上達法（樂壇の大御所、幸田延子先生が初めて發表されたピアノ上達の祕訣です。これさへ御覽になれば誰方も忽ちピアノに上達するので評判）

◢神經痛とリウマチの民間療法（必ず治る新療法を四種發表早くお試しみください）

◢子供の謂ゆる『蟲』の手當法（お母樣方はぜひ御覽ください。田村博士發表）

◢菊作りの名人が苦心を語る會（深井清藏氏が祕訣を發表で大評判）

◢アパート經營に成功した經驗（七人の子を育てながら未亡人の成功した經驗）

◢冬洋服を安く買ふ祕訣（背廣服や婦人子供服を二三割安く買へる祕法）

◢お惣菜向の美味しい大根料理（美味しい大根料理の廿種類發表）

◢秋魚の和洋料理法（さんま、いわし等の美味しい料理法で大評判）

冬の子供簡單服の作方（二三歳から七八歳までの冬の新型男兒服と女兒服の仕立方五種を發表。どれも溫かくて可愛い新型ばかりで仕立方は簡單ですから誰方にも直ぐ出來ます。大評判。）

大評判の小說

◢二つの貞操 吉屋信子

◢愛憐の生母 山中峯太郎

虹の故鄕 牧逸馬（牧逸馬先生の大傑作で日本中で大評判の小說）

◢白百合屛風 子母澤寬

◢若草物語

此外にも興味讀物澤山發表

五十錢（送料六錢） 東京神田（振替東京一八〇） 主婦之友社

ハガキ一本で出來る大評判 クラダの防寒ショール千枚贈呈